

국내 첫 여성학도서관 문연다

동덕여대 4층건물 6천여권 소장계획...29일 부분개관

95. 9. 17

박정숙 기자

동덕여대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여성에 관한 모든 자료를 아우르는 '여성학 전문 도서관'을 만들어 오는 29일 교내 본관 5층에 부분개관하는 등 여성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덕여대는 여성학도서관 부분개관을 앞두고 여성의 지위·권리 향상과정, 사회참여 및 여성의 역할 신장과 연관된 연구와 역사적 변천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출간된 초판본의 외국 책 4백종을 구입하는 등 한창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또 자료 전체를 전산화해 교내에 마련될 근거리통신망과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국내외에 제공함으로써 여성학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한편, 도서관 전산화 시대에 발맞춰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 '여성학 연구센터'를 설립해 여성학 연구의 산실로 발전시켜나간다는 당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는 대학도서관 등의 특성화와 전문화로 대학간 경쟁 시대를 헤쳐나간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동덕여대는 또 여성개발대학원 설립을 교육부에 신청해 놓았고, 현재 '성과



여성학 전문 도서관이 새로 문을 여는 등 일반인들이 여성학 자료를 접할 수 있는 곳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숙명여대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자료실 모습.

김경호

사람' '여성론' '여성과 심리' 등 8과목인 여성학 관련 학부 교양강좌를 연구센터 개관에 맞춰 대폭 늘려나갈 예정이다.

동덕여대 도서관장인 장도석 교수(계산통계학과)는 "여자대학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여성학과 관련 분야 연구 수요 증대에 발맞춰 여성학 특화 도서

관을 꾸리게 됐다"며 "일단 국내 도서 4천2백여종, 외국 도서 1천8백여종을 구입한 뒤 내년말 교내에 연건평 8백평의 4층건물을 완공해 여성학도서관을 정식개관하면서 자료를 더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여성학 관련 책과 자료가 가장

많이 갖춰진 곳은 한국여성개발원 도서관이다. 2만5천권의 단행본과 4백여종의 정기간행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이화여대는 도서관에 여성학실이 따로 마련돼 여성학 자료를 풍부하게 갖추고 있으나 일반인들이 이용하는데는 그리 만만치않은 실정이다. 또 숙명여대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는 3천여종의 여성학 관련 도서를 갖추고 있으며, 중앙도서관에도 관련 도서와 자료가 구비돼 있다.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는 일반인들이 주민등록증을 맡기면 책을 빌려주기도 한다. 여성학대학원이 설치된 대구 계명대 중앙도서관에서도 여성 관련 도서를 일반인들이 볼 수 있다. 이밖에 여성학 관련 연구소가 설치된 대학은 연세대, 서울여대, 효성여대, 부산대, 부산여대, 목포대 등이 있다.

한국여성개발원 백영주 책임연구원은 "여성학과 관련된 여성학 연구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나는 것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각종 도서관들이 여성학 관련 자료 등을 일반인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